

(주소) 1538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전화) 031-481-7000 (팩스) 031-481-7053

배 포 일	2025. 11. 19.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 즉시				
경기도미술관 2025 경기작가집중조명 《작은 것으로부터》 개최		13	17	gmoma.ggcf.kr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 유채린 학예연구사 (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2025 경기작가집중조명

《작은 것으로부터》 개최

–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박혜수, 최수양 경기 중견작가 집중 조명

- ▶ 경기문화재단 제작 지원의 대형 설치 신작 소개
- ▶ 작품 세계를 형성한 '작은 것'에 집중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예술적 태도 살펴
- ▶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킴킴 갤러리 프로젝트의 첫 공공 미술관 전시
- ▶ 박혜수, 탈북민 설문조사 기반 작업으로 초대형 그래피티 벽화 선보여
- ▶ 최수양, '반투명 조각' 신작으로 조각 너머의 총체적 구성

전 시 명	2025 경기작가집중조명 《작은 것으로부터》
전시기간	2025. 11. 19.(수) ~ 2026. 2. 22.(일)
전시장소	경기도미술관 전시실 1,2
전시부문	조각, 설치, 영상, 회화, 판화 등(전시작품 35 점)
참여작가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박혜수, 최수양 3명(팀)
주최주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11월 19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2025 경기작가집중조명 《작은 것으로부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견작가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박혜수, 최수양 3인(팀)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전이다. 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 추진의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 사업과

협력해 제작 지원 신작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작은 것로부터》는 1990년대 조각적 기반 위에서 출발해 동시대의 사회적·제도적 맥락 안에서 조형 언어를 갱신하고 변주해 온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세 작가(팀)의 '작은 것'은 물리적 크기의 문제가 아닌, 작가의 예술 세계를 구성하는 태도이자 동시대의 조건을 통과하는 감각적 전략으로, 작은 감각에서 시작해 사회 구조와 제도, 물질과의 관계로 시선을 확장해왔다. 실제로 이들은 1990년대에 조소 전공으로 정규 미술 교육을 받거나 조형적 작업 세계를 구축했던 세대로, 20여 년간 조각, 설치, 영상, 회화, 퍼포먼스, 출판 등으로 매체를 확장하며 동시대 미술의 제도적 조건과 사회적 참여의 방법론, 조각의 매체적인 행위성을 탐구해왔다.

2008년부터 함께 작업을 시작한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는 가능성이 촉발하는 에너지에 기초한 작업을 선보인다. 주변 환경과 유연하게 관계 맺으며 진화하는 작업의 방식은 전시에 선보이는 작가 팀의 신작 15점과 킴킴 갤러리의 첫 공공미술관 전시 프로젝트인 이번 전시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서로 이질적인 관계의 요소들을 조합하는 조각 설치 작업을 비롯해, 43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킴킴 갤러리 프로젝트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면으로 뻗어나가는 예술 실천을 엿볼 수 있다.

박혜수는 발화되지 않은 미시적 감정과 구조화되지 않은 개인의 이야기를 수년간 수집하고 분석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탈북민 50명과 한국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이어지는 연작의 흐름에 위치한 두 점의 대형 설치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 공간 전체를 점유하는 작품은 탈북민의 인터뷰 음성과 집회의 소음을 비롯해 작가가 수집한 소리로 만들어진 사운드스케이프와 전시 공간을 감시하는 서치라이트를 포함한다. 10미터 규모의 미술관 벽면에 직접 그린 그래피티 양식의 벽화는 오예슬 작가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다.

최수앙은 매일의 일상에서 물질과 시간 사이를 진동하는 반복과 수행의 리듬으로 작업을 생성해왔다. 2020년대 들어 회화 매체, 영화적 언어, 해부학 3D 모델 등을 참조하여 조각적 언어를 변주하는 방식으로 축적하고 있다. 전시에서는 조각에서 나아가 총체를 살피는 작가의 현 지점을 보여주는 대형 조각 설치 신작이 출품된다. 또한 조각이 내포하고 있는 시간·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담은 행위를 느낄 수 있는 아카이브 성격의 조각 설치, 영상 작품을 최초로 전시한다.

전시 기간 중 12월 6일과 13일, 토요일에는 전시를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2월 6일에는 킴킴 갤러리와 오랜 시간 협업했던 작가들의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구민자 작가의 〈정통의 맛: 매운 해물맛 라면〉 퍼포먼스와, 사라 벨라스 작가의 〈벨라슬라바세이 파노라마〉 시연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다. 12월 13일에는 박혜수와 사운드 아티스트 ABOPF의 〈클라우드 드림〉 사운드 퍼포먼스, 최수앙과

콘노 유키 비평가의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당일에는 서울 시청역 3번 출구와 안산 경기도미술관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과 셔틀버스 탑승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https://gmoma.ggcf.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보다 자연스럽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성을 확보했다. 오디오 가이드는 배혜지 아나운서의 재능 기부로 제작되어, 전문성과 따뜻한 전달력을 갖춘 해설로 전시 작품의 감상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오디오 가이드는 경기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로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에는 15인 이하 소규모 도슨트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어, 밀도 높은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작가들의 전시 준비 과정과 작품에 담긴 의도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인터뷰 영상은 전시장에서는 물론, 경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과 경기도미술관 SN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가 각자의 시선과 태도를 담은 인터뷰와 작업 장면이 어우러져, 전시의 맥락과 흐름을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한다. 아울러 작가별 비평과 인터뷰를 수록한 도록이 출간될 예정이다.

이번 《작은 것으로부터》 전시는 동시대 작가들이 20여 년간 축적해온 태도와 조형 언어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제도적 조건과 사회적 참여의 방식, 조각 매체의 본질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전시는 '작은 것'에서 출발한 작가들의 시선에서 생동하는 감각과 가능성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오디오 가이드와 전시해설(도슨트) 프로그램 및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https://gmoma.ggcf.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 작가 소개

 <p>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p>	<p>김나영과 그레고리 마스는 2004년부터 듀오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공동 작업을 시작하고, 주변 환경과 맺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관계를 작업에 도입했다. 2008년에는 미술 작품을 보여주고,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시스템'인 킴킴 갤러리를 만들며 퍼포먼스, 렉처, 워크숍, 출판, 페스티벌의 다양한 형식의 예술작업을 선보여왔다.</p> <p>주요 개인전으로는 《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2024, 아뜰리에 에르메스), 《리프로스펙티브》(2019, 성곡미술관), 《하와이에는 맥주가 없다》(2012, 아트클럽1563) 등이 있다. 킴킴 갤러리로는 《액면가로 () 받아들이기》(2019, 시드니 주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문화원 갤러리), 《더글러시즘 페스티벌》(2013, 일민미술관, 관훈갤러리, 시네마테크 등), 《정서영 개인전: 사과vs.바나나》(2011, 현대문화센터)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p>
 <p>박혜수</p>	<p>박혜수는 모두가 문기를 꺼려하지만 귀 기울여야 할 작은 이야기에 주목하고, 사회에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보편 가치에 물음을 던진다. 설문 조사, 인터뷰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개인의 이야기를 채집,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들과 협업하면서 입체적인 데이터를 작품으로 조형화한다.</p> <p>주요 개인전으로는 《모노포비아 - 외로움 공포증》(2022,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지금 여기는 어디에도 없다》(2016, 송은 아트스페이스), 《보통의 정의》(2013, 송은 아트스페이스), 《Project Dialogue vol.1 - 꿈의 먼지》(2011, 금호미술관),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2011, 포스코미술관), 《Project Dialogue -Archive》(2009, 소마 드로잉센터) 등이 있다.</p>
 <p>최수앙</p>	<p>최수앙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체에서 출발한 형상에 기반해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병리적 현상, 개인이 모여 만들어 내는 상호작용 등 관계의 이야기를 다루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조각 매체와 더불어 판화, 회화 등의 다양한 매체를 선보인다.</p> <p>주요 개인전으로는 《플루리버스: 내밀한 전도》(2022, 갤러리 에스피), 《언폴드》(2021, 학교재), 《몸을 벗은 사물들》(2017, 뉴산갤러리 뉴욕), 《얼굴》(2016, 파리 갤러리 그라디바), 《오브젝트》(2014, 스페이스 캔 베이징), 《더 블라인드 포 더 블라인드》(2014, 벨기에 안셈부르크미술관), 《2011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2011, 성곡미술관), 《아스파거의 작은 섬들》(2010, 파리 갤러리 알베르 베나무) 등이 있다.</p>

2.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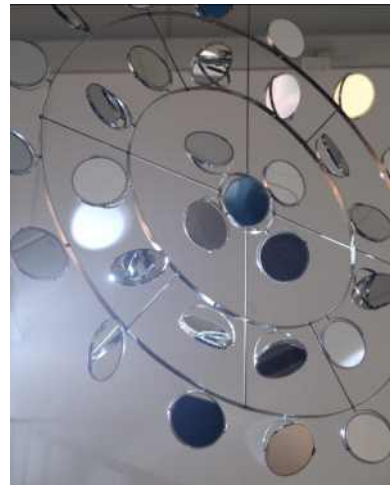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전시 전경 1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전시 전경 2



박혜수 전시 전경 1



박혜수 전시 전경 2



최수앙 전시 전경 1



최수앙 전시 전경 2

3. 주요 출품작 소개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사이코 빌딩 No. V〉, 2025, 철근, 페인트, 전광판, 350 × 592 × 465 cm. 경기문화재단 제작 지원, 2024.

약 6미터에 달하는 대형 조각 설치 신작 〈사이코빌딩 No. V〉(2025)에서는 색색의 철근 구조물이 서로 겹치고 이어지며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구조를 이룬다. 이질적 요소들의 예상치 못한 조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조물 최상단의 전광판 '킴킴 갤러리'는 전시 프로젝트인 〈킴킴 갤러리: 트라우마 자랑〉을 대변한다.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김킴 갤러리: 트라우마 자랑>, 2025, 혼합 매체, 가변 크기.
경기문화재단 제작 지원, 2024.

<김킴 갤러리: 트라우마 자랑>(2025)은 43명의 작가가 참여한 김킴 갤러리의 첫 공공미술관 전시 프로젝트다. 2008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처음 시작된 김킴 갤러리 프로젝트는 갤러리, 비영리 단체, 큐레토리얼 실천, 전시 디자인 회사, 출판 편집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미술 제도의 경계에서 유동적인 활동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전시 프로젝트는 '트라우마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의 트라우마가 사회적 자본처럼 기능하는 문화적 현상에 집중한다.



박혜수, <나라없는 사람 Ver. 25>, 2025, 6채널 사운드, 블루투스 스피커, 스테인리스 스틸, 그래피티, 서치라이트, 거울, 로봇청소기, 확성기, 분쇄된 한국 화폐, 각종 오브제, 배합기, 설문지, 가변크기. 경기문화재단 제작 지원, 2024.

그래피티 제작: 오예슬

사운드 디렉팅: 위지영

음성 녹음: 김혜윤, 박선희, 장석훈, 한송미, 제임스 구

화폐 협조: 한국은행

설문 협조: 통일부, 하나원

설문 지원: 서울시립미술관

<나라없는 사람 Ver. 25>(2025)는 하나원의 협조를 받아 탈북민 5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과 한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시작한 작업으로, 전시장을 감시하는 서치라이트와 탈북민의 음성을 담은 사운드 모빌 조형물을 통해 빛과 소리를 공간에 펼친다. 탈북민이 건너온 중국의 사막처럼 보이는 언덕은 한국은행의 협조로 제공받은 분쇄화폐로 이루어졌다.



박혜수, 〈지상낙원〉, 2025, 그래피티, 벽화, LED 조명, 가변크기. 경기문화재단 제작 지원, 2024.

그래피티 및 벽화 제작: 오예슬

〈지상낙원〉(2025)은 전시장 한쪽 벽면 전체를 채운 대형 그래피티 벽화와 평화 기호(☯) 형상의 LED 조명으로 구성된다. 사막을 지나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자들이 꿈꾸는 낙원을 묘사한 이 작품은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하늘별세상》, 2023년 샤르자 비엔날레 《나라없는 사람》에 이어지는 연작이다. 10여 년 전 '포기한 꿈'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시작한 프로젝트는 미술관, 통일부, 한국은행 같은 제도 기관과 협업하며 '우리 밖의 존재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담아냈다.



최수양, 〈괴물원〉 연작, 2025, 종이죽, 먹, 아교, 폴리에스터 레진, 에폭시 레진, 폴리우레탄 레진, 폴리우레탄 페인트, 알루미늄 망, 강철,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187 × 136 × 93 cm; 221 × 101 × 95 cm; 251 × 80 × 82 cm; 207 × 118 × 88 cm; 200 × 90 × 87 cm; 215 × 59 × 65 cm; 281 × 78 × 77 cm; 256 × 108 × 60 cm; 194 × 59 × 64 cm.
경기문화재단 제작 지원, 2024.

최수양, 〈UFO〉, 2025, 종이죽, 먹, 아교, 폴리에스터 레진, 에폭시 레진, 폴리우레탄 레진, 유리섬유, 폴리우레탄 바니쉬, 알루미늄, 강철, 스테인리스 스틸, 240 × 180 × 150 cm.
경기문화재단 제작 지원,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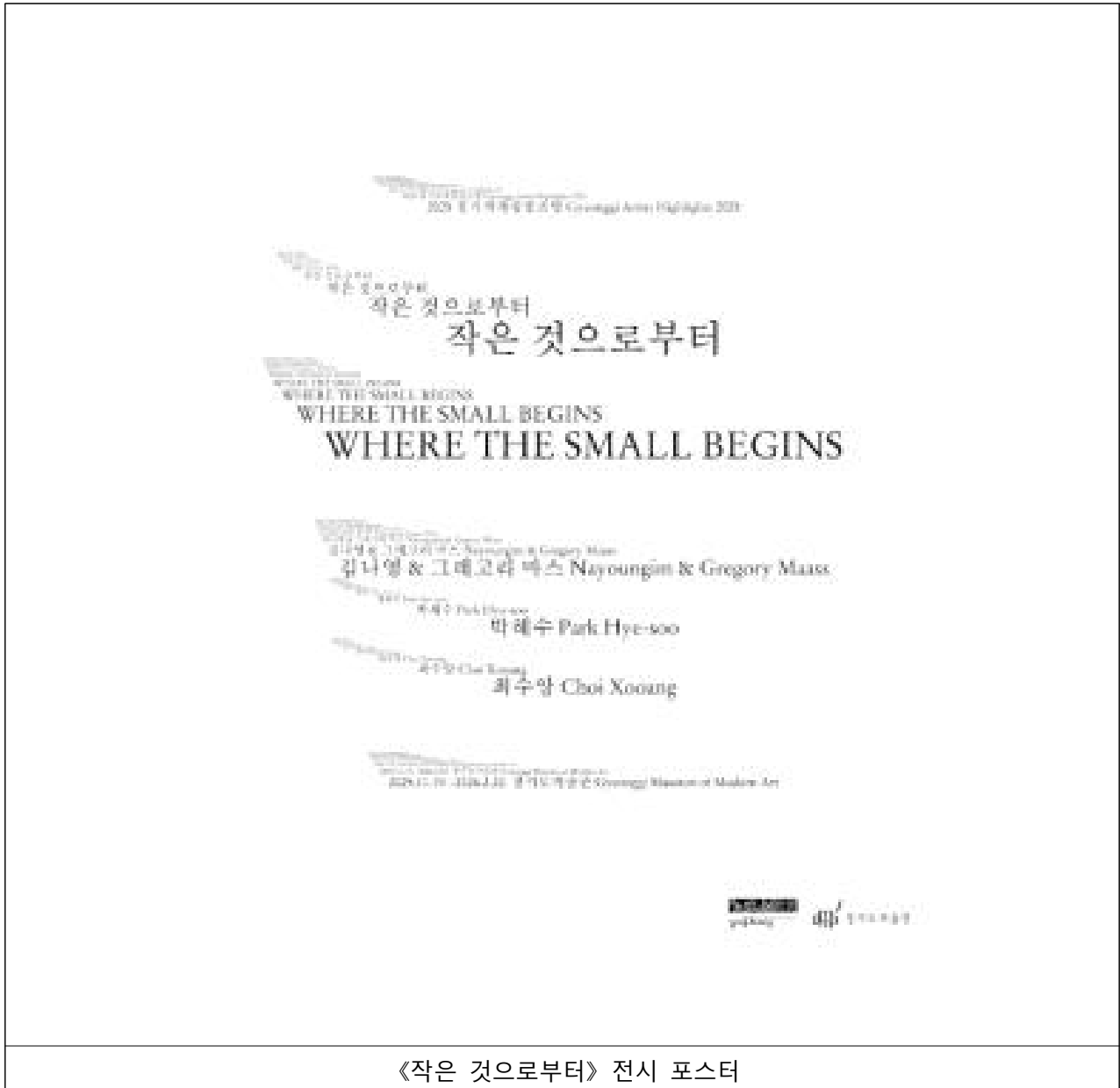
신작 〈괴물원〉 연작(2025)은 각각 약 2m에 달하는 9점의 조각과 5m 높이에 매달린 〈UFO〉 (2025)은 함께 배치되어 하나의 장면을 만든다. 신체의 주요 뼈들과 피부에 가려진 근육들이 형태화되고 결합된 '반투명 조각'들이다. 작가는 초충도의 구성에서 영감을 받아 각 요소들이 하나의 거대한 총체 '자연'을 형상화하듯 〈괴물원〉과 〈UFO〉의 관계를 설정했다.



최수앙, <조각들>, 2005-2020, 조각 원형, 부산물, 가변 설치.

<조각들>은 15년간의 제작 과정에서 파생된 실리콘 몰드, 석고 원형 등 실험의 과정이 드러나는 조각들과 부산물을 모은 작업이다. 잘 알려진 최수앙의 완성작과는 달리 채색되지 않은 불완전한 형태를 그대로 선보이며 조각에 숨겨진 시간과 과정을 드러낸다.

3. 전시 포스터



《작은 것으로부터》 전시 포스터

4. 전시 연계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시간표

일자	시간	프로그램
12월6일 (토)	14:00-15:20	김킴 갤러리, 구민자 〈정통의 맛: 매운 해물맛 라면〉 퍼포먼스
	15:30-16:00	김킴 갤러리, 사라 벨라스 〈벨라슬라바세이 파노라마〉 퍼포먼스
12월13일 (토)	14:00-14:40	박혜수 X ABOPF 〈클라우드 드림〉 사운드 퍼포먼스
	15:00-15:50	최수앙 - 콘노 유키 아티스트 토크

○ 연계 프로그램일 셔틀버스 안내

- 12:30 시청역 3번 출구 ▷ 경기도미술관
- 16:30 경기도미술관 ▷ 시청역 3번 출구

○ 신청

-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https://gmoma.ggcf.kr>)

4. 전시 관람 안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 관람료 : 무료
- 관람문의 : 031-481-7000

gmoma.ggcf.kr

Facebook @ggmoma

Instagram @gyeonggimoma